

21세기 도서관, 문제는 콘텐츠다

정현대 |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생산력 증대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항상 이전까지의 지식정보를 매개로 개발돼왔다고 한다. 결국 새로운 기술적 혁신의 관건은 기왕의 지식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진화의 핵심은 해당사회가 갖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얼마나 잘 공유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지식자원의 나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 시스템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위험한 '정보상업화' 논리

과학기술의 혁신과 생산력의 효율을 담보했던 도서관의 역할을 두고 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세기에 도서관이 기여해왔듯이, 21세기에도 도서관이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활동을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환경요인으로는 극단적인 상업화 논리로 치닫고 있는 전지구적 신경제 논리의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인류사회의 호혜적 자원공유를 꿈꿨던 인터넷 공간이 정보상업주의의 유통채널로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듯이, 학술연구 기반채널로서 오프라인 매체의 대표적 유통공간인 도서관에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따른 극단적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적인 시각으로 무장한 경영론자들이 창의적 자원으로서 도서관의 효용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이런 정보상업화의 추세야말로 공익시설로서 도서관의 앞날을 위협하는 반(反)도서관적 논리의 전형으로, 심지어는 공적 기금으로 해당공동



도서관은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라는 이념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류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사진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체 성원들에게 공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독립채산제의 원리를 내세워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결국 도서관이 자신의 이념인 '누구에게나 무료'라는 기본원리를 부인하고도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한가지 도서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은 기술적 대안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다. 디지털 정보만의 완벽한 전자도서관은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대중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도서관의 위력과 효용은 이미 부지불식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다. 다만 그 위력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기왕의 도서관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문헌매체의 정통성을 과소평가하며, 뭐든지 디지털화해야 유용하다는 식의 전자매체에 대한 과신은 이제 차분히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다.

매체간 장점 극대화 방안 모색해야

물리적 실체인 문헌과 오프라인 매체(CD롬, 비디오테이프 등)를 주력으로 하는 전통적 도서관 활동의 이념이 온라인 매체가 패권을 쥐게 될

장래에도 유효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간의 공적으로 볼 때,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라는 도서관의 이념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류의 과학기술개발에 현저하게 기여해왔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옳은 정책이념이었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현재는 다만 전통매체인 문헌과 이를 보완하는 전자매체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상당한 시간을 두고 두 매체의 극단적인 대체가 아닌 중층적 공존을 통해 매체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보성을 견지하리라는 전망이 이즈음 논란의 대체적인 중론인 듯 싶다.

내년이면 국가의 교육·연구망인 전국적 도서관 네트워크가 완성된다고 한다. 우리의 도서관 네트워크가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개별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을 몽매간에 고대하면서도 이에 연결될 도서관의 확일적이고 빈약한 콘텐츠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경제활동 부실로 쏟아 부은 공적자금의 1,000분의 1이라도 도서관 문화에 투자했다면... 그저 덧없는 공상으로 아쉬움을 대신할 뿐이다.●